

## News

### 오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벼는 만큼 대출’ 조기 시행

KBS

금융당국, DSR 확대 적용 시기 앞당기고, 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 넓히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오늘 발표 예정

DSR 도입 시기 앞당기게 되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합해 빌린 돈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예외없이 DSR 40% 적용… DSR 규제 적용범위 2금융권으로 확대… 장례식, 결혼식 등 예외

### 토스뱅크, 3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연합뉴스

토스뱅크, 25일 오후 이사회로 총 3천억원의 유상증자 추진… 이번 증자를 통해 주당 액면가 5천원의 주식 6천만 주 신규 발행

이 중 보통주는 4,500만 주, 전환주는 1,500만 주… 기존 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 보유 무의결 종류주 1,250만 주는 무의결권 전환주로…

### 토스뱅크 중금리대출 ‘금융권 신기록’ 썼다

헤럴드경제

토스뱅크, 단 10일간의 여신 영업 기간동안 3분의 1이상을 중금리 대출로 실행… 평균금리도 7%로 은행권 한도 10% 이하보다 낮은 수준

영업 10일간 실행된 대출 건수 총 23,930건… 중저신용자 대출액 약 1,400억원으로 전체 28.2% 차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고객이 전체 대출 잔액의 38.6%

###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실패…결국 사업 폐지한다

한국경제

한국씨티은행, 사업 매각 실패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신규 서비스 중단 및 직원 감축 등 점진적으로 사업 축소하는 방식… 고비용 인력구조와 국내소비자금융 매력 감소가 원인  
규제강화와 저금리, 저성장도 성장동력 상실의 원인…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희망퇴직 실시, 고객과의 기존 계약 관련해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 서비스 예정

### 손보사 車보험료 손해율 개선…인상요인도 多, 동결로가나

머니투데이

국내 11개 주요 손보사들의 9우리까지 누적 자동차 보험 손해율 평균 83.1%…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손해율 평균 90.2%와 비교해 7.1%p 낮아져…

2017년 80.9% 손해율로 손보사 전체에서 총 266억원 플러스된 이후, 4년만의 자동차보험 부문 흑자 기대 가능… 업계 관계자 “대부분 동결에 무게들 것” 언급

### 금리 오르니 보험료 부담 '뚝'…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소비자 기대 '쏙'

데일리안

생명보험업계,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 고조에 공시이율 재차 인상할 보험사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

신한라이프, 지난 달 2.10%인 저축 상품 공시이율은 이달 초 2.15%로 0.05%p 인상한 바 존재… 미래에셋생명, 연금과 저축보험 모두에서 공시이율 인상 기대

### 올 상반기 ELS·DLS 발행잔액 80조…2013년 이후 최저

이데일리

올 상반기 중 ELS, DLS 발행액은 전년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45조원 기록… 상환액은 5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4,000억원 증가

상반기 중 증권사의 ELS, DLS 발행 및 운용 손익은 5,865억원 짐계… 홍콩H지수 지속적 하락 추세로, 편입된 ELS 조기 상환 지연에 소비자 손실 확대 우려…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 KT 통신 장애…증권사 MTS 일부 1시간 멈췄다

연합인포맥스

KT,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25일 점심시간 전후로 1시간 가량 KT 유무선 인터넷망 멈추는 일 발생… 일부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 멈통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 KT 통신 이용 투자자들의 MTS 접속 불가 및 지연… 한국거래소는 주식 시세 관련 전용망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 발생하지 않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